

보도자료 - CMG 제약

홍보본부 홍보2팀 |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335

작성일 : 2019년 7월 9일

CMG 제약, 피부기능 보강 제품 라인업 본격화

<Dermal Enhancement>

- 의료기기 전문 연구·제조기업 ‘디메드리소스’와 전략적 파트너십
- 7월 말 ‘그레노스 하이드로그로우’ 이어 다양한 제품 출시 예정

CMG 제약이 피부 기능을 높이는 의료기기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CMG 제약(대표이사 이주형)은 지난 8 일 의료기기 전문 연구·제조기업 디메드리소스(대표 구태훈)와 피부기능 보강 제품(Dermal Enhancement)의 국내 출시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번 파트너십으로 디메드리소스는 제품을 생산·공급하고, CMG 제약은 병원 유통 및 마케팅을 담당하게 된다.

처음 출시될 제품은 가교(Cross-linked)된 히알루론산을 주원료로 하는 겔 타입의 신개념 필러 ‘그레노스 하이드로그로우’로, 2013 년 미국 FDA 승인을 획득했다.

특히 이 제품에는 히알루론산 입자를 미세한 구슬형태로 만드는 ‘마이크로 바이페이즈 (Micro Biphasic) 기법’이 적용돼 엠보싱 현상 없이 얼굴 전체에 부드럽게 주입되며, 입자 간 점성 및 응집력도 뛰어나 수분감, 탄력 등이 오래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CMG 제약 이주형 대표는 “7 월 말 출시 예정인 ‘그레노스 하이드로그로우’는 국제적으로 그 효과와 안전성을 인정받은 제품”이라며 “디메드리소스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신개념 마이크로 바이페이즈 필러를 시작으로 피부 기능을 보강해주는 다양한 제품들로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1980 년에 설립된 디메드리소스는 현재 180 여개 의료기기와 이와 관련된 국내특허 40 여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30 여 품목은 미국 FDA 또는 유럽 CE 로부터 승인을 획득했다.



<사진설명> CMG 제약 이주형 대표와 디메드리소스 구태훈 대표가 파트너십 체결 후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 끝 -